

"우와~! 전기가 들어오네?"

"수돗물이 나와!"

"온수 샤워가 가능하다니! 이거 너무 사치 아냐?"

"식탁을 닦아도 휴먼지가 안 묻어나!"

"인터넷도 이렇게 빠르고!"

"모기에 물려도 말라리아 걱정 안 해도 되고"

"추위에 떨면서 안 자도 되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지난 2 주간 아프리카 말라위 사역을 마치고,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 쏟아낸 감사 제목들입니다.

전세계 최빈국 5 위 안에 든다는 말라위!

한국에서는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 말라위에서는 모두 기적 같이 여겨지는 일들이거든요.

First Impressions ('오만과 편견' 원제, 흥내내 봄^^)

인천을 출발,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를 한번 경유해 거의 18 시간만에 도착한 말라위의 수도 릴롱게 공항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건 애초에 각오했었지만, 출입국 심사와 보안검색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당시 저희는, 화물칸에 부쳤던 가방이 심하게 깨져, 그대로는 도저히 다시 짐을 부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2 시간 내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기에 마음이 더 조급했죠). 마침 Baggage Claim 사무실이 근처에 있길래 들어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담당직원이 서류작성을 하고, 사진을 찍고... 열심히 도와주는 듯하길래,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서류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순진한 저희는 그 직원의 말에 '순종'해,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다른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일단 체크인부터 하라지 뭐예요?

'이 깨진 가방을 가지고 체크인을 하라고...?'

이해가 안 갔지만, 하라는 대로 해야지 어찌겠어요? 그래서 탑승수속을 하러 가는데, 이미 엑스레이 보안 검색이 끝난 가방들(배부용으로 가져간 책 때문에 무지 무거웠거든요)을 또 올려 놓으래요. 그래서 무거운(심지어 가방이 깨져 금방이라도 내용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가방을 간신히 추스려가며 다시 올렸죠. 이번엔 공항직원이 모든 가방을 일일이 다 열라고 지시해서 또 '순종'했지만, 사실, 자세히 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그냥 입국자들을 일부러 귀찮게 하려는 심술 같아 보였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바로 2 미터 옆에서 똑같은 검사를 또 하지 뭐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짐 검사를 이미 했다'고 했더니, 그래도 또 해야 한대요. 어쩔 수없이 또 '순종'해, 무거운 짐을 다시 올렸어요. 이번에도 검사는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두 번의 짐 검사를 마친 후, '이젠 나갈 수 있겠지...' 생각하며 가려는데, 바로 2 미터 떨어진 곳에서 또 똑같은 검사를 한다며 다시 짐을 올려 놓으래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싸워 봤자 시간만 지체될 것 같아 그냥 또 '순종'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체크인 데스크로 갔지만, 일처리가 얼마나 느린지... 정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러다간 제 시간에 비행기 탑승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해졌죠. 마침내 우리 순서가 되어, 깨진 가방을 보여주며 'Baggage Claim 을 여기에서 하라고 했다'고 (우리도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처음부터 보상해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듯, '일단은 짐을 이대로 부쳐야 하니,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래핑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준 곳으로 갔더니, 래핑 비용으로 미화 5 불을 내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미화 지폐를 줬더니, 발행연도가 오래 된 지폐는 안 받는대요. 어쩔 수없이 은행에 갔다, 환전소에 갔다... 비행기 놓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결국 래핑 비용을 지불하고 래핑해 달라 했더니, 또 짐 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가방을 검색대에 또 올려 놓으래요.

가방 검사만 벌써 네번째! 너무 기가 막혔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번에도 공항직원은 일일이 가방을 다 열어보면서,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구요. '아, 결국 이거였구나. 그 많은 짐 검사가, 돈을 주면 면제받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공항직원들의 부정부패에 일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시비를 걸더라구요. '이 많은 책들(저의 저서 '인턴 J'의 영어판)이 다 뭐냐?'고요.

그래서 '말라위의 목회자들에게 줄 선물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내 선물은 어디 있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더라구요(그의 지나치게 솔직한 모습이 한편 귀엽기도 했습니다^^).

난감해진 우리는 '어차피 전도용으로 가져온 책이니, 돈을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냥 책 한 권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싱글벙글하며 좋아하더라구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말라위에서는 이런 책 한 권도 정말 귀하구나...!' 전도용 책을 받아 들고 기뻐하는 그 직원의 해맑은 모습이 갑자기 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건 깨진 가방을 어렵사리 래핑한 후, 다시 체크인 데스크로 가서 수속을 하면서 '가방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당신들이 가는 블렌타이어라는 도시에 가서,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배상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나중에 그곳 선교사님께 여쭙 보니, '배상 신청을 해 봤자, 절차만 복잡할 뿐, 결국 배상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럴 거면서 왜 처음부터 뱅뱅이를 돌렸냐고~!^^).

그렇게 두 시간 내내, 땀을 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결국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무려 40 분 동안이나 출발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자 말라위 사람들조차 도저히 못 참겠는지, 승무원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하는 말, '승객 한 사람이 아직 안 와서 대기 중이다'라더군요. 이에 비행기 안은 마치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기세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바뀌었죠. 말라위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댔지만, 승무원은 실실 웃으며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다시 20 분이 지나서야 '문제의 그 지각생'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말라위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사람을 보고 웃어줬습니다(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말라위 사람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과 달리, 호전적이지 않고, 싸우기를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들이라고요).

그렇게 총 24 시간에 걸쳐 드디어 목적지인 블렌타이어에 도착했습니다. 오랜 비행시간에 몸도 피곤했지만, '불합리+부조리+비효율'의 끝판왕인 말라위의 행정 시스템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태였지요. 그래서였는지 공항에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들께 제가 첫번째로 한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세상에! 말라위에서 어떻게 사세요? 여기에서 사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말라위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말라위가 너무 좋아요!"

Second Impressions (2 주간 영어만 썼더니... 영어가 절로 나옴^^)

그런데 말라위에서 2 주간 지내면서,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난한 생활,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낙후된 환경, 물자가 너무 귀해 오히려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시장 상황, 거짓말과 도둑질이 난무한 가운데 속지 않으려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네, 말라위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말라위 사람들은 따뜻하고 착합니다. 외국인인 우리에게 늘 환하게 웃어주고, 참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또한 TV 나 인터넷 보급율이 낮아, 외부 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또 남들과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는 걸 싫어해, 큰 분란 없이 평화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죠.

저희는 이렇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평화로운 분위기에 차츰 매료되어 갔습니다.

끝내 도착하지 않은 책

강의 당일까지도 책은 결국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의 맥과 핵]의 가장 큰 강점은 [워크북]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괄호 안에 정답을 적고, 지도를 따라 그리고, 표를 이어 붙이는 활동들을 통해, 수강자들이 어려운 개념들을 쉽고, 재미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보기도자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말라위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번 세미나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책은 ‘하나님의 때’에 도착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요.”
이 얘길 듣고, 솔직히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내가 하나님보다 교재를 더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미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란 깨달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도착 다음날, 주일에 현지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조문철 선교사)

순수하고 갈급한 영혼들

드디어 강의 첫날! 강의장에 가보니, 자리를 가득 메운 200 명의 사역자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전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난생 처음 보았는데, 그들의 음악성과 춤 솜씨란...! 감탄이 절로 나오더군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흑인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천부적 재능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1 주차, 블렌타이어 지역 세미나)

1 주차, 블렌타이어 지역에서는, 제가 직접 가져간 영어 교재를 네 사람에게 나눠 준 후,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다가, 네 사람이 본문 내용을 돌아가며 읽게 했는데, 제 귀에는 말라위식 영어 발음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자들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교재도 없이, 다른 사람이 말라위식으로 읽어주는 영어 내용을 귀로만 들으면서 멍뚱멍뚱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알아듣긴 하는 건가?'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그분들이 감동했다는 듯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듯 '아멘'을 복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4일간(총 24 시간 동안)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혹은 소감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강의가 정말 powerful 합니다.”

“내 평생 이런 강의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성경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듣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보다 정확한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교수법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경의 맥=구속사, 성경의 핵=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님,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의 계속해 주세요.”

“강사님을 말라위에 꼭 다시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2 주차, 릴롱케 지역 세미나)

그리고 이런 반응은, 2 주차 릴롱케 지역에서 강의할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재도 없이, 무려 200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강당이 너무 커서 슬라이드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영어도 부족한 저희가 강의한다는 건... 정말이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보나마나 죽을 쏠 게 뻔했죠.

그럼에도 수강자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셨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Q&A

Q1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프리카의 최빈국 말라위에 저희를 보내셨을까요?

A1 저희는 그 답을, 말라위 사역자들의 순수한 눈망울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법 잘산다는 남아공만 해도, 성경 세미나를 열어 봤자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라위에서는(이번에도 그랬듯이), 세미나를 열면 수백 명씩 몰려와 오히려 인원을 제한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말라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성경말씀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Q2 하나님께서는 왜 책을 미리 보내 주지 않으셨을까요?

A2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지나치게 교재를 의지했던 저희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말라위에서는 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는' 것보다 '듣는' 데에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예배 때에도 누군가 대표로 성경을 읽어주면 나머지는 다같이 듣는대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듣는' 데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습효과는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가 처음부터 워크북을 제공했다라면, 수강생들이 평소 익숙지 않던 activity 에 정신이 팔려, 정작 강의 내용에는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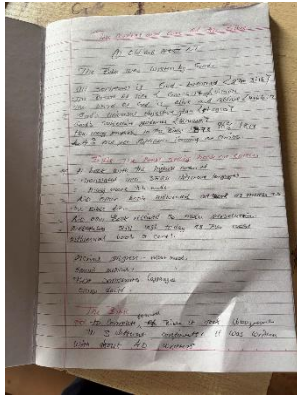
Q3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교재를 결국 보내 주셨을까요?

A3 앞서 말씀드렸듯, 말라위 사람들에게 책은 아주 귀합니다(집에 책이 단 한 권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2 주차, 릴롱게 지역 세미나 때, 현지어(치체와어) 통역 두 사람에게 제가 처음 책을 보여줬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 가득한, 컬러판 책을 보고 황홀해 어쩔 줄 몰라하던 그 모습! 그러면서 '이 책, 우리가 가져도 될까요?'라며 겸연쩍게 묻던 그 모습! 그 말에

제가 '물론이예요. 그리고 나중에 책이 도착하면, 새 책도 드릴게요'라고 하자, 뿔 듯이 기뻐하던 그 모습!

모르긴 몰라도... 이분들, 책을 받은 후에 정말 열심히 (책장이 많도록) 읽을 기세였습니다.



(교재 없이, 강의를 들으며 필기한 수강생의 노트)

자, 이제 답이 나왔지요? '하나님의 때'가 왜 '최적의 때'인지 말입니다.

일단 오디오 교육을 초집중해서 들은 후, 책을 보며 복습할 때, 교육효과가 얼마나 더 향상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습법은 정말이지 '꿈'이 다르지 않나요?^^



(2 주차, 릴롱웨 지역 세미나 수료식 후, 선물과 함께 나누어 준 교재)

Q4 후속 교육 계획요...?

A4 앞으로 10~50 명 정도의 소수정예, 전문강사 요원들을 선발해, Zoom Class 로 집중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말라위 땅에, 더 나아가 아프리카 땅에 [성경의 맥과 핵]을 통한, 성경 교육을 확산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1 주차와 2 주차 세미나 후 찍은 단체사진)

에필로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내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오한과 근육통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말라리아 예방약을 계속 먹었는데도,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 말라리아에 걸린 건가? 아니면 너무 무리한 스케줄에 몸살이 난 건가? 이제부터 한국까지 다시 비행기를 12 시간 타고 가야 하는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몇몇 분들께 급히 기도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더군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2 주간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습니까? 그런 제게 보상을 해 주시진 못할 망정, 병까지 나게 하시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기도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보다, 세상의 욕심과 눈앞의 형편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변명 삼아 영적 타협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고꾸라뜨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쩔 이렇게 제 마음과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곧 ‘깨갱~’하며 회개했죠.

남편이 구해다 준 타이레놀 두 알 먹고, 비행기에 탑승해 자다 졸다 하며 인천공항까지 무사히 도착했을 땐, 어느새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상이 사라진 걸 보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멀미 탓이었는지, 메스꺼움과 어지럼증 등이 심했지만, 일단 말라리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지요).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폭~ 잤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지금은 컨디션 최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놀라운 비전을 놓고 기도해 주심으로써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